

김홍호 칼럼 삶의 핵심에 이르는 사람들 ⑩

Meister Eckhart



하나님을 만나 얻은 것은 없다.
내가 다만 내가 된 것 뿐이다.

| 김홍호 |

독일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한계 없는 하나님 체험을
김홍호 선생을 통해 맛보십시오(편집자 주).

하
 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과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같은 눈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저라는 것이다. 햇빛도 거저 바람도 거저 물도 거저 산도 거저, 거저 속에 깨끗이 있고 풍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이 있다. 우리는 거저를 떠나서 어디서 참삶을 찾을 수 있을까? 거저는 무위(無爲)라고도 표현되고 무소주(無所住)라고도 표현되지만 무라는 사상, 거저라는 사상, 빈탕이라는 사상이 없으면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있을 수가 없다. 거저 믿고 거저 바라고 거저 사랑한다. 이렇게 거저라는 생각을 기독교인 가운데서 하는 사람은 독일의 에크하르트(Meister Johannes Eckhart, 1260~1328)다. 보통 신비주의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에크하르트는 거저 사랑한 사람일 뿐이다.

거저에 비하면 이해관계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태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바람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뿐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본래 거저다. 떡 하나도 따지고 보면 본래 거저지 그것이 인간의 창조가 아니다.

이 거저의 깊은 뿌리에서 너는 너의 일을 아무 까닭 없이, 이유 혹은 원인도 없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무가 거저 자라고 꽃이 거저 피듯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거저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네 일을 천당 가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라든가, 즉 밖에서 무엇 때문에 그대가 무엇을 한다면 진심으로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대가 무엇을 위해서 할 때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사랑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신을 만나는데 부엌이나 외양간에서보다는 안방에서, 마음속에서, 존경 속에서, 사랑 속에서 만나야지 그렇지 안다면 신을 붙잡고 좃겠다고 머리에 외투를 씌워주고 모자 밑으로 구겨 박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고로 신을 어떤 모습으로 찾는 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모습 뒤에 숨어 있는 신은 언제나 놓치고 말 것이다. 그런 고로 신을 모습에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신 자신을 신 자신인 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삶이 삶 자신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사느냐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삶이란 삶 자체의 고유한 뿌리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고유한 뿌리에서 삶이 솟아 나오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삶 자신이 삶 자신으로 자기의 삶을 산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 까닭 없이 사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고유의 뿌리에서 일하고 있는 참 사람에게 “그대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나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뿌리를 가지고 산다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 산다는 것이다. 나무는 이유 없이 산다. 거저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연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거저 살고 있는 것이다. 태양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다. 거저 비추고 있는 것이다. 거저 비추는 것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사랑의 세계라고 한다.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세계요, 내가 없는 세계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없어졌을 때 나는 신과 하나가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절대적 자유를 살게 되는 것이다. 거저 사는 것이

참 사는 것이요, 그것이 참 자유다. 자유는 거저 속에 있다. 새가 허공을 날듯이 인간의 자유는 거저 속에 있다. 에크하르트는 정신은 일체의 수량을 넘고 일체의 잡다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정신은 신에 의하여 돌파되어야 한다. 신이 나를 돌파할 때 나는 또 신을 돌파한다(신과 나와 하나가 된 자리는 신도 없고 나도 없다). 신은 정신을 신의 사막으로(에크하르트에 무(無)를 사막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신 자신의 동일성으로 인도한다. 그때 신은 하나의 순수한 하나요, 스스로 자기 속에서 솟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신은 아무런 까닭을 가지지 않는다.

만일 정신이 어떤 까닭을 가져야 한다면 하나 자체로 어떤 까닭을 가져야 한다(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는 하나이기에 하나인 것뿐이다. 하나 속에는 아무 까닭도 없다. 그것은 이성을 초월한 세계다). 정신은 하나(同一性)와 자유 속에 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의지는 전혀 자유로워 하나님 이외는 누구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까지도 의지를 강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지를 자유 속에 두고 의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지의 부자유가 아니고 의지 자신의 근본적인 자유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의지의 자유란 의지의 근본적인 자유다. 그것은 거저 일하는 자유다. 해야 되겠기에 하는 것뿐이다. 술성지위도(率性之謂道) 그것은 자기의 본성이니까 하는 것뿐이다. 복숭아가 복숭아꽃을 피우듯이 자기의 본성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다.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 그것이 아무 까닭 없는 자유다. 진리란 까닭 없는 것이 진리다. 말이 깨지고 이치가 깨졌을 때가 진리다. 신성의

사막과 동일성의 자유, 까닭 없는 정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 그것이 신과 하나가 된 자유다. 태양이 빛을 비치듯이 거저 비치는 자유 그것이 거저의 자유이며 무의 자유이며 영의 자유다. 이런 자유를 에크하르트는 내가 나의 제일 원인 안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떤 신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원인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있는 그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는 신도 만물도 없었다. 에크하르트는 내가 내가 될 때 신도 나요, 만물도 나다. 이때 있는 것은 나뿐이다라고 했다. 일체가 공이 될 때 있는 것은 유뿐이다(眞空妙有). 내가 내가 될 때 신이 신이 되고 만물이 만물이 된다. 이때 나는 신과 하나가 된 영원한 현재다. 이때 나는 무엇이나 할 수가 있다. 나는 일체의 인간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체의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가 있다.

나도 하나의 태양이요, 나도 하나의 풀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없는 내가 된다. 정말 하나가 되면 하나는 또 둘이 된다. 남녀가 성숙해서 사랑하여 나가 되면 남자는 더 남자가 되고 여자는 더 여자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는 둘이 되고 하나가 둘이 될 때 둘은 또 하나가 된다.

내가 정말 내가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둘로서의 영원한 현재가 된다. 그것을 에크하르트는 나의 영의 일체의 힘이며, 그대가 신과 하나가 되어 누구도 그대를 신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다. 이때 나는 충분히 신을 찬미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나는 나의 모든 공덕에 죽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를 적나라한 신성의 무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나는 영원한 무에서 유로 가라앉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무에서 유가 되기

위해서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다. 무아가 되는 것은 대아가 되기 위해서다. 신성의 무에 들어가는 것은 무에서 유로 가라앉기 위해서다. 자기의 입장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기 위한 것이다.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잎이 피기 위한 것이다. 무가 되는 것은 유가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내가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되자는 것뿐이다.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뿐이다. 무에서 유를 가라앉히는 것은 무 이전의 유가 아니다. 무를 통과한 자유가 되는 것이다. 무를 가진 진공묘유, 뿌리를 가진 나, 꺾어진 꽃이 아니라 뿌리를 가지고 나누어 핀 꽃 그것이 아무리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라고 해도 뿌리 있는 풀 그것이 영원한 현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마치 땅에 떨어진 시 같아서 그것은 완전한 새 생명으로 싹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이지요, 본래적인 자기가 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의 전부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은총도 만물도 지식도 의지도 일체의 욕망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은총이 그 안에서 움직인 것은 필요했다. 왜냐하면 신의 은총이 작용할 때 그는 우연성(偶然性)으로부터 순화(純化)되었기 때문이다. 은총이 그 일을 다 할 때 바울은 그가 그 이전에 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마치 옛날 소동파가 다시 와서 여산 절강을 보니 산은 비어 덮이고 물은 바람에 밀려 별것이 아니더라 한 것과 같다(到得還來無別事 廬山

烟雨浙江潮).

깨치고 보면 새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적인 자아가 된 것 뿐이다. 하나님을 만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만 내가 된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절대 무가 되고 내가 절대 무가 될 때 내가 절대 유가 된다. 피조물이 은총을 통해서 가장 깊이 신화될 때 그때 나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 뿌리를 가진 풀이 된다. 신성의 무를 가진 현실의 유가 되는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진리와 같이 되기 전에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은 내가 생각해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직접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에크하르트는 자기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 이요, 체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는 이런 체험을 돌파라는 말로 표시한다.

인간의 근본 경험이 너무도 생생하고 충격적이기에 그것은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어떤 위대한 학자가 자기의 돌파가 자기 유출보다 고귀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참이다. 내가 신에게서 흘러나왔을 때 만물은 신이 계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파에서 나 자신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하나의 의지를 완성(空)했을 때 나는 일체의 피조물을 넘어서 신도 피조물도 아닌 본래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있게 될 것이 된 것이다. 나는 하나의 충격을 받아 일체의 천사 위에 올라간다. 이 충격 속에 나는 굉장한 부(富)를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신도 신이 아니고 있는 일체의 것을 가지고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나

사람 속에 신이 있을 자리가 있다면 아직 깨달음은 아니다.
인간이 아직도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차별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나로 하여금 신을 벗어나게끔 신에게 비는 바이다.
그것은 나의 비존재적인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신을 넘어서 있다(非存在的存在).

는 돌파를 통해서 나와 신이 하나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되어 나는 줄지도 더하지도 않는다. 이때 나는 만물을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신은 인간 속에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의 가난(無)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존재하였던 것,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을 얻어가진 것이다. 이때 신은 정신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난이다.

에크하르트는 무를 가난이라고 표현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돌파라는 경험은 진리를 깨달은 경험이요, 그것은 유출보다도 더 높은 경험이다. 내가 있다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었다는 경험이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경험은 범신론적인 표현이다.

기독교적인 유일신관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지만 그는 신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한 여자도 부한 남자와 결혼하면 부자가 된다. 신화(神化)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여자는 더욱 여자가 될 뿐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남녀가 남녀이면서 아니 남녀일 때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인간

이 하나의 돌을 사랑하면 그도 돌이 된다. 그가 한 사람의 인간을 사랑하면 그도 하나의 인간이 된다. 그렇다면 그가 신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말기로 하자.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그는 신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대들은 나를 돌로 때려죽일 것이다(성서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성서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데 인간이 신에게 무로 접근한다면 그는 신적인 형상 속에 없어지고 있게 되고 넘어서게 되어 그 안에서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은 하나 됨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돌파라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획득이다. 사람 속에 신이 있을 자리가 있다면 아직 깨달음은 아니다. 인간이 아직도 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아직 차별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나오 하여금 신을 벗어나게끔 신에게 비는 바이다. 그것은 나의 비존재적인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신을 넘어서 있다(非存在的存在).

신이 일체의 차별을 넘어서는 것 같은 신의 본질 속에 나 자신은 현존하고, 나라는 인간을 지은자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는 나 자신의 원인이고 나의 시간적인 생성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다. 내가 태어난 존재이기에 나는 결코 사멸할 수가 없다. 나의 태어나지 않은 존재 방식으로 말하면 나는 영원하였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다. 태어난 면으로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 있다 죽어서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을 것이고 시간과 같이 썩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깨어남으로써 만물이 태어나게 되고 이리하여 나는 나 자신과

만물의 원인이 된다. 만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도 만물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이 신인 것은 내가 그의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은 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시간 자체와 6천년 사이에 일어난, 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어날 일체를 하나의 현재적인 지금 속에 다시 끌어 들인다면 그것이 때가 찼다는 말일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지금이요, 이때 영은 만물을 신 안에 마치 내가 현재 그들을 가진 것처럼 새롭고 신선하게 같은 기쁨을 가지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에 있어서 진리의 자각은 시간의 충만이요, 영원한 현재다.

인간에게 사는 자유가 있다면 이 돌파(突破)를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풀이 자라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꽃을 피워서 얻는 결과는 영원한 삶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나쁘고 괴로운 생이라도 살기 싫다는 삶은 없다. 왜 그대는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대는 살고 있다. 것처럼 생은 그 자신으로서 살고 싶은 것이다. 지옥 속의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자도 그 지옥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생이 고귀한 것으로서 아무런 매개물 없이도 직접 신에게서부터 그들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신에게서부터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생은 무엇인가, 신의 본질이 나의 생이다. 신의 본질이 나의 생이라면 신의 존재는 나의 존재요, 신의 존재성은 나의 존재성이어야 한다. 그보다도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 그들은 영원히 신과 같이 산다. 신과 꼭 같은 것으로서 산다. 그보다 아래도 위도 아니다. 그들은 모든 그들의 일을 신과 같이 일하고 신은 그들과 같이 일한다. 에크하르트

트에게 있어서 신의 생명은 일체를 포함하는 만물의 원천이요, 인간이 만물을 포함할 때 인간의 생명은 신의 생명과 같게 된다.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길은 자기를 멸하는 길밖에 없다. 그 자신 안에서, 신 안에서, 일체의 피조물 안에서 자기를 무로 멸한 인간은 최하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것이요, 이때 인간 속에는 신이 자기 자신을 쏘아 넣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의 영원한 진리로 말한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뽑아버린 사람에게 신은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부여하신다. 신은 그의 생명, 그의 본질, 그의 자연, 그의 모든 신성 속에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부를 쏘아 넣는다. 우리들이 신의 밑바닥, 신의 가장 깊은 속에 가려면 우리의 밑바닥에,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순수한 겸손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은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오시오”하면 어렵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오”하면 쉬운 것처럼 인간이 겸손하여 자기를 비우면 신도 자기의 선의를 억제할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에게 스스로 내려가서 자기를 낮추어 부어넣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가장 작은 자에게도 가장 큰 것으로 자기를 부어주고 아주 자기를 주어 버린다. 신이 주시는 것은 그의 본질이요, 그의 본질은 그의 선의요, 그의 선의는 그의 사랑이다.


에크하르트는 사랑보다도 미움(空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을 그는 이탈(離脫)이라고 한다.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만, 미움은 자기로 하여금 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성 바울처럼 사랑을 최대의 것으로 생각하여 어떤 수행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 대신에 이탈을 찬양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사랑이

좋다는 것은 사랑이 신을 사랑하도록 나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나를 신에게 강요한다기 보다는 신을 나에게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탈은 내가 신과 하나가 되는데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탈은 신 이외에 아무것도 받들 수 없게끔 나를 강요하는 것이다. 자기를 봄으로 신을 맞아들이려는 에크하르트 태도는 동양적인 절대무와 깊이 통하는 데가 있다.

절대무에서 돌파를 경험하려는 태도는 절대무에서 성불을 경험하려는 태도와 흡사하다. 칼 융은 “에크하르트는 돌파에 있어서 선불교의 체험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체험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에크하르트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동서양을 연결짓는 다리로서 에크하르트는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에크하르트는 1260년 고다시 부근 훗호하임 기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9년간 정규과정에 따라 신학을 배우고 케룬 대학원에 갔다. 이때 학장으로 알벨투스 마그누스가 있었으며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생이기도 했다. 1300년 우수한 성적으로 발탁되어 파리 대학에서 3년간 연구와 교수를 겸하게 되었다. 그것은 박사 칭호를 얻기 위해서다. 이때 돈스크투스가 이 대학의 교수였다. 42세 법왕으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고, 44세에 작센교구 교구장이 된다. 여기저기서 설교와 강연으로 이름이 높아진다. 51세에 다시 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된다. 1년 후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와서 신학교 학장이 된다.

그는 이미 독일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되었다. 그의 영향은 수도사나 일반 대중에게도 깊이 침투해 갔다. 그 후 케룬 고등학원의 교의학 교수가 되었다. 이것은 독일 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고 그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그

의 사상을 위협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66세에 케룬의 대승정의 이단 고발이 있었다. 에크하르트는 검찰의 기소문에 두 번씩이나 변명서를 냈다. 67세를 일기로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 2년 후에 법왕 요한 XII세는 그를 이단으로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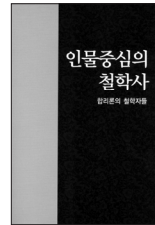
- 이 글은 '인물중심의 철학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 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인물중심의 철학사- 합리론의 철학자들

김흥호 저 | 사색출판사 | 현재 품질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4'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2년에 걸쳐 발간한 1인 월간지 '사색'을 주제별로 묶어 전10권의 전집으로 발간하였던 것 중에서, 서양철학에 대한 내용들을 편집하여 엮었다. 서양 고대와 중세의 대표적 철인과 근대의 합리론에 속하는 철인들의 생애를 살펴본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서양 근대 합리론 철학자 23인의 생애와 그들의 기본 사상을 우리의 심성에 와 닿도록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